

공공도서관 사서의 정보활용능력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A Survey Research on Information Literacy in Public Librarian

신정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jashin@library.kr

남영준, 중앙대학교, namyj@cau.ca.kr

Jeonga-A, Shin, Gyeonggido Cyber Library

Young-Joon Nam, ChungAng University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정보활용능력 수준에 대한 자기인식과 실제 평가를 통해 Big6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도서관 사서의 정보활용능력 수준실태를 78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요구 영역은 높게, 정보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모든 영역에 대해서 평균이상으로 조사되어 사서들의 정보활용교육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정보활용교육 경험여부에 대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정보이용 영역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1.1 연구목적

도서관 정보봉사의 중요성은 이용자교육과 함께 이용자과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대 정보화 사회의 도서관 환경은 전통적인 책자형태의 정보와 함께 IT기반의 정보까지 이용자를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새로운 정보수용환경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량의 증가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정보접근의 기회와 함께 전자형태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최적화된 정보검색기술과 함께 유용한 정보만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적합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활용능력'을 위한 이용자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IFLA를 비롯하여 UNESCO 등과 같은 도서관 문화를 위한 도서관관련기관에서는 정보활용능력을 21

세기 이용자에게 필요한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평생교육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이용자가 적시, 적소에서 적절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이를 위한 교육제공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정영미 2009; 이정연, 최은주 2006), 인식도에 대한 연구(이현실, 최상기 2005)를 하거나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박남진 2005)에 대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그 능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도에 수행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에서의 정보활용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담당자의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전문성'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현장에서

이용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 수준에 대한 자기 인식과 평가를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문제점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보활용능력모형 중 공공도서관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Big6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도서관 사서의 정보활용능력 수준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진행하는 사서대상 정보활용교육 참석자 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참석자 스스로의 자가진단과 함께 정보활용능력 평가를 통해서 실태현황을 파악하고 정보활용능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연구의 목적보다는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실시된 관계로 기존 연구와 비교해볼 때 실제 평가에 대한 문항수가 적어 비교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정보활용능력의 이론적 배경

2.1 정보활용능력의 정의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은 전통적인 문해력 즉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으로부터 유래하여 시대의 변천과 함께 매체나 기술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리터러시의 개념이 제기되어 왔다

ALA(1989), ACRL(2000)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정보활용능력은 개인이 정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평가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총괄적

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IT환경을 비롯하여 인터넷 자원 등 도서관에서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원을 수집 및 열람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능력을 중점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일 수 있다.

2.2 정보활용능력의 모형 구성

Big6 모형은 미국 워싱턴 대학의 아이젠버그(M. Eisenberg)교수와 고등학교 도서관 사서 베크위츠(R. Berkowiz)가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고학력에 이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정보문제해결과정 모형으로 정보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모형의 단순성과 사용의 용이성을 정의하기 위해 여러 연구와 단체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ACRL의 경우는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으로 5개의 표준과 함께 그에 따른 22개의 수행지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 국가와 단체에서 유사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표 1> 주요 정보활용능력 모형의 비교

Big6모형	ACRL모형	ANZIL모형	SCONUL모형
1.과제정의	1.정보요구	1.정보인식	1.정보요구인식 2.정보격차해결능력
2.정보탐색 전략	2.정보접근	2.정보탐색	3.검색전략수립능력
3.정보접근			4.소재파악 및 검색능력
4.정보이용	4.정보이용	4.정보이용	6.정보조직, 적용, 전달능력
5.표현 및 종합			5.정보관리
6. 평가	3.정보평가 및 통합	3.정보평가	5.비교 및 평가능력
	5.정보윤리	6.사회문화적 인식	

이미 정보활용능력의 대표적 모형으로 알려진 ACRL(2000), ANZIL(2004), SCOUNL(2004) 모형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Big6모형을 기반으로 정보윤리적 영역을 평가 단계에 추가하여 사서들이 가져야 할 수행능력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2> 수행모형의 구성

수행과정	수행능력	수행지표
정보요구	문제정의	과제 재구성
	정보요구인식	키워드 파악
정보탐색 전략	정보원파악	정보자원의 파악
	최적의 정보원	정보자원의 접근조건
정보접근	정보원소재파악	정보검색기법 이해
	정보탐색	정보조사 과정 이해
정보이용	정보내용 확인	참고정보원 이용
	정보 추출	정보 분석, 조직화
정보종합	정보 정리	보고서 작성능력
	정보 표현	인용형식이해
정보평가	정보평가	결과평가
	정보윤리	저작권에 대한 이해

3. 연구질문

이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최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서들은 정보활용능력을 스스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는지와, 자기진단과 실제 평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활용교육의 경험의 여부에 따라서 그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통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연구질문1. 사서들은 정보활용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는가?

연구질문2. 사서들은 자가인식과 실제 평가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3. 사서들의 정보활용능력 교육경험은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4. 연구설계 및 방법론

4.1 조사 개요

조사대상은 경기도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경기도 정보활용교육에 참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교육생인 사서들은 정보활용교육 담당자로 총 7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구성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와 유사한 논문을 참조하여 개개의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개인사항과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기진단 6문항, 그리고 앞에서 구성한 수행지표를 측정하기 위하여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2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분석영역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분석, 두 번째는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기진단 실태현황, 세 번째는 실제 평가결과 마지막은 정보활용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3> 정보활용능력의 자기진단의 결과

구분	영역	정보 요구	정보탐색전략	정보 접근	정보 이용	정보 종합	정보 평가
매우 그렇다	빈도	2	1	1	1	0	2
	%	2.6	1.3	1.3	1.3	0	2.6
그렇다	빈도	34	20	20	22	23	10
	%	43.6	25.6	25.6	28.2	29.5	12.8
보통이다	빈도	37	48	48	47	41	43
	%	47.4	61.5	61.5	60.3	52.6	55.1
그렇지 않다	빈도	4	9	9	8	14	22
	%	5.1	11.5	11.5	10.3	17.9	28.2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0	0	1
	%	0	0	0	0	0	1.3
합계	빈도	78	78	78	78	78	78
	%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2.55	2.7	2.83	2.79	2.88	3.12
	표준편차	0.6385	0.6666	0.6327	0.6316	0.6833	0.7448

5. 조사결과의 내용

5.1 인구통계학적 분석

설문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연령 분포가 20대(30.8%)와 30대(48.7%)가 높게 나타났다.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경험여부에서는 대부분(67.9%)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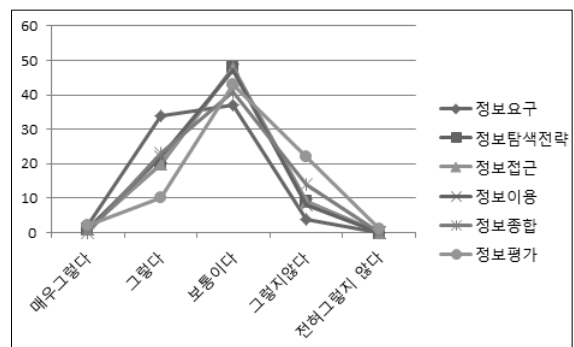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징

영역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연령	20대	24	30.8
	30대	38	48.7
	40대이상	16	20.5
교육 여부	있음	25	32.1
	없음	53	67.9
합계		78	100

5.2 정보활용능력 자기진단 결과

사서들의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기진단은

6개의 영역별로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부터 매우 낮음으로 리커드 5점척도로 수행하였다. <그림 1>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정보의 정당한 이용과 저작권에 대한 이해능력을 담고 있는 정보평가 영역을 제외하고는 보통이상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키워드와 주제 내용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요구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서들이 정보평가와 정보윤리영역에서 다른 영역보다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이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자기진단 결과

그리고 이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2012)에서 나타난 결과 - 정보활용교육 지식 정도-에 대한 평균값(3.08)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3 정보활용능력 실제 평가 결과

정보활용능력 실제평가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정보원 파악영역과 정보표현영역의 인용형식에 대한 이해부분, 그리고 정보검색기법에 있어 검색연산자에 대한 이해부분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저작권관련 정보윤리부분과 정보추출 방법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표 5> 영역별 평가점수

수행과정	수행능력	정답률
정보요구	문제정의	79.5
	정보요구인식	79.5
정보탐색 전략	정보원파악	59.0
	최적의 정보원	87.2
정보접근	정보원소재파악	69.2
	정보탐색	88.5
정보이용	정보내용 확인	71.8
	정보 추출	89.7
정보종합	정보 정리	71.8
	정보 표현	65.4
정보평가	정보평가	83.3
	정보윤리	93.6
평균		78.21

자가진단과 실제 평가를 비교해서 보면 자가진단에서 높았던 정보요구 영역은 평균점수의 점수를 보였다. 반면 자가진단에서는 낮은 평가가 나온 정보평가영역은 실제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사서들이 실제 가진 능력에 비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설문문항 수가 적은 연구의 한계로 판단된다.

5.4 집단간의 차이

정보활용교육여부에 따른 각 연령 집단간의 정보활용능력 평가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정보활용교육 경험여부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에서도 정보이용영역(t=2.132, p=0.38)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활용교육의 경험이 있는 집단이 정보이용영역에서만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6. 결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정

보활용능력에 대한 수준의 자가진단과 평가를 통한 현황조사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78명의 교육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Big6 모형을 통해 간략하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자가진단으로 측정해본 결과, 정보요구 영역은 높게, 정보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모든 영역에 대해서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활용능력의 실제 평가에서 가장 낮은 영역은 정보원, 정보소재파악, 정보표현 영역이었으며 정보추출과 정보윤리영역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가진단과 실제 평가를 비교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진단에서는 정보요구영역이 실제평가에서는 낮았고, 자기진단에서는 낮았던 정보평가 영역이 실제평가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활용교육 경험여부에 대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정보이용 영역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사서의 자가진단과 실제평가 결과를 통해서 사서들은 자신의 정보활용능력 수준을 보통이 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평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앞으로 낮게 나타난 영역을 중심으로 사서들의 재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해당영역에 관련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사서를 위한 정보활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내용은 각 영역으로 세분화되어있지 않고 정보원과 정보접근, 정보이용, 정보윤리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앞으로는 사서들이 자신의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평가를 통해 그 능력을 각 영역별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여러 제약점을 가지고 진행된 연구로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좀 더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위한 평가 수행지표를 다양화시키고 표본 수를 늘려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동철. 2005.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2호, 6, 69-91
- 국립중앙도서관. 2012. 정보활용교육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박남진. 2005.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정규과목으로서의 정보활용교육 수강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영미. 2009. “정보활용 교육이 도서관과 정보활용능력 자가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65-280
- 이정연, 최은주. 2006.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효용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315-334.
- 이현실, 최상기. 2005.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1): 91-112.
- 이수상. 2007. “우리나라 대학생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41(1): 85-102
- 이혜영. 2009. 대학생들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척도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 Eisenberg, Michael B. 2008. “Information Literacy: Essential Skills for the Information Age.” *DESIDOC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Technology*, 28(2): 39-47.